

전시기 국가자본주의적 기획과 소비대중의 비국민화*

: 가정 캠페인과 '국책형 규수'를 중심으로

권창규**

차례

1. 머리말: 총력전과 소비
2. 소비대중에 편재된 '비국민'의 가능성
3. '여성화된' 소비대중과 "국책형 규수"
4. <가정=시장=전장>을 둘러싼 국가자본주의적 기획

<국문초록>

본고는 전시기의 국민화 과정을 국가자본주의적 기획에서 조명하고 그 성별화된 양상에 특히 주목했다. 전시기에 생산력 증강을 꾀한 공식적인 정책(병참기지정책, 결전재편성정책)과 대조적으로 일상 실천의 요구에서 소비는 두드러졌다. 소비가 다시 주목받았다는 것은 특기할만한데 전근대의 사람들이 소비 곧 상품 소비와 화폐 사용을 통해 새롭게 개인화, 집단화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전시기에 다시 일상 소비를 단속하고 관리한 사실은 소비대중의 국민화의 일단을 보여준다. 필자는 소비대중의 욕망과 일상에 주목했고 국민화의 요구로부터 이탈한 '비국민'들에 주목했다. 몇몇 비국민의 행태가 직접 치안과 통치의 대상으로 부각되었지만 소비행위가 지닌 무자유와 질서 때문에 무질서의 가능성은 소비대중에 편재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2013S1A5B5A07047539]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후연구원

함을 논의했다. 소비대중들 중에서도 특히 도시(지역)-중상층(계층)-여성(젠더)이 국민화운동의 표적으로 부상했는데 특히 가정과 현모양처(낭비하는 여성들이 위협한다고 여겨졌던 가정과 그들이 거둬나야할 모델로서 제시된 현모양처)의 모델에 주목함으로써 반자본주의-동양적 근대라는 사상적 걸개를 갖춘 총력전이 지닌 자본주의적 기획의 면모를 지적했다.

핵심어 : 총력전, 국가자본주의, 소비대중, 국민화, 가부장제, 현모양처

1. 머리말: 총력전과 소비

“1930년대의 대공황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단지 1940년대의 총력 동원 체제 속으로 사라졌을 뿐이다”¹⁾라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인상적인 말에서는 우선 두 가지 점을 뽑아낼 수 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된 국가들이 동시대적으로 위기를 경험했다는 사실, 전쟁이 공황의 실제적인 출구이자 블랙홀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미국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전쟁이라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소모전으로 공황은 빨려 들어갔다. 1차 대전에서 세계가 경험했던 총력전은 이어졌던 2차 세계 전쟁에서도 전개되었는데 무력전뿐만 아니라 사상전, 경제전의 전방위에 걸쳐 있었고 전시와 평시, 전장과 일상의 경계를 타파할 것을 요구했다.

전시기(1937~1945)에 한반도 통치 정책의 핵심은 생산력 확충이었다. 식민지였던 한반도의 역할이 원료 공급과 시장의 역할에서 물자 및 노동력 공급으로 구체화되고 있었고 1930년대 초반부터 일본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15년(이 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익히 알려진 농공 병진정책, 병참기지정책, 결전경제재편성정책은 각각 조선총독부가 ‘만주

1) 정성진 편, 천경록·이수현 역,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책갈피, 2009, 36쪽.

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 대응하여 한반도를 전쟁에 동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생산력 향상을 꾀한 정책²⁾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에서 공장으로 노동력을 수급하고 일본으로 노동력을 동원하는 정책이 성인 남성을 필두로 여성과 소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전개되었다.³⁾

노동력을 확충하고 동원하는 계획이 생산력 증강과 직결되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상 경제 차원의 변화도 요구되었다. 바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생산 경제 정책과 달리 생활 경제의 핵심을 이루었던 소비 혼란이었다. 전시기에 이루어졌던 일상 캠페인에서는 소비가 중요한 항목으로 빠지지 않았다. 1930년대 후반, 1940년대 전반기에 걸쳐서 한반도에서는 각종 생활 캠페인이 술하게 이어졌는데 그 뼈대에는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운동, 1941년 국민총력운동이 있었다. 두 운동은 일종의 '국민화' 운동으로 사상과 의례에 걸쳐 다양한 방면에서의 변화를 요구했는데 "가장 적절하고 긴급한 것"으로 "생활혁신"⁴⁾이 꼽혔다.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요구하는 데 소비는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소비자는 따로 호명되기도 했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구호에서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물가고를 억제하기 위하여는 군, 민, 상, 공업자, 소비자가 합치하여 협력하여야 한다."⁵⁾는 말이 나왔다. 인용문에서 소비자는 상공업자에 대응하는 말인데 확대, 해석하자면 자본주의의 생산과 소비의 체제에서 물품을 생산자로서 대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소비자로

2) 방기중 편, 『일제 과시즘기 한국 사회 자료집 4』, 선인, 2005, 해제(방기중 해제), v쪽.

3) 이상의, 『1930-40년대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동원 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3. 장미화,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여성동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07. 김미정,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여성노동력 동원정책과 실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진실과 화해, 미래를 위한 진상 규명』, 2005 참조.

4) 이각중 편, 『국민정신총동원독본』, 경성신민사, 1938.(방기중 편, 『일제 과시즘기 한국 사회 자료집 6』, 선인, 2005, 49쪽.)

5) 이각중 편, 『국민정신총동원독본』(방기중 편, 『일제 과시즘기 한국 사회 자료집 6』, 40쪽.)

볼 수 있다.

일상 앞에 숨어있는 소비를 끄집어내고 규율하는 <(소비) 일상>의 개조는 근대 계몽기부터 있어왔는데 1910년대의 구(舊)관습개혁운동과 1920, 30년대에 걸쳐 전개된 각종 문화운동과 생활개선운동 속 금주, 금연, 절약 운동이 대표적이다.⁶⁾ 하지만 전시기라는 어느 때보다 국민화 요구가 강력했던 시기에 요구되었던 소비 훈련의 특징적인 국면이 있다. 소비훈련은 산업화 이래 계속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전시기에 주목하는 까닭은 전시기라는 전쟁 같은 일상 나아가 일상화된 전쟁을 조명하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뿐만 아니라 다른 의도도 있다. 전시기라는 국가자본주의의 요구가 적나라했던 때 소비대중과 자본, 제국이 충돌하는 전선을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라는 조건은 이 충돌 양상을 더욱 복잡적이고 중층적으로 보여줄 것이다.⁷⁾

소비하는 개인이 국민화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종 소비 캠페인은 ‘소비자 문화의 국가화’⁸⁾로 요약될만하다. 토지와 신분으로부터 묶여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데 화폐 및 화폐를 통한 소비 행위를 통해 ‘합리화’되었다면 국민화 과정은 이들을 다시금 ‘주술화’하는 과정이었다. 소비 일상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소비 일상에서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보국(報國)적인 소비’가 강조되었는데 이를테면 같은 값이면 품질을 따지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국산(國產)’을 선택하라거나 나아가서는 소비를 무조건 억제하라는 요구가 그것이다.

말하자면 전시기에 어떤 신화적이고 초월적인 요구가 ‘합리화’라는 이

6) 물론 절약 강조뿐만 아니라 소비 촉진의 성격도 공존했다. 권창규, 「식민지시기 한국에서 전개된 일상 합리화운동」, 『인문연구』 69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605~630쪽.

7) 참고로 식민지에서의 종족 배제와 행정적 폭력으로 구성되는 군중의 양상에 대해서는 이해령, 「근대 미디어로서의 극장과 식민지시대 문학 장의 동학: 식민지 군중과 개인」, 『대동문화연구』 69집,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485~527쪽.

8) “nationalizing consumer culture.” Karl Gerth, *China Mad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3, p. 289.

름으로 덧씌워진 것인데, 이 합리화 과정은 산업화 이래 전개되어 온 긴 소비 훈련의 역사에서 보았을 때는 대중을 노동력으로 사회화한 산업 체제가 대중을 소비력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던 사정을 반영한 결과다. 통제의 내용은 생산과 소비를 관련짓고 소비가 무질서하게 흐르지 않도록 단속, 관리함으로써 소비대중을 국민화하려는 제국의 필요를 보여준다.

본고는 국민화 과정에서 소비 일상에 주목하고 국민화의 기초가 되었던 소비대중의 존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근대적인 가치가 일상화되는데 소비가 핵심적인 기제임을 상기한다면 전시기의 일상을 짚어내는 데 소비는 중요한 기제이다. 근대 문명의 가치는 상품 소비를 통해 정착되고 감각화되었는데 전시기의 일상에서도 소비 행위가 주목할 만한 것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 본 논의의 착안점이다. 소비운동의 양상을 살피고 자본과 제국, 대중이 충돌하는 양상을 논의하기 위해 문학작품과 국민화운동의 독본 자료를 살피고자 한다. 박태원의 후기 장편소설과 김기림의 수필, 국민화운동의 독본 외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전시기의 자본과 대중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소비대중⁹⁾에 편재된 비국민의 가능성

박태원이 1939년에 발표한 소설 『명량한 전망』¹⁰⁾에는 아래와 같은 인상적인 장면이 나온다. 1930년대 말, 1940년대 초에 발표된 박태원의 소

9) 익명의 비조직적 무리를 일컫는 대중(mass), 군중(crowd), 공중(public), 나아가 다중(multitude)은 대중에 대한 상반된 시선과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군중 대 공중, 다중의 구별에 비해 대중 대 군중의 구분은 엄밀하지 않다고 보고 혼합해서 썼다. 참고로 용어의 개괄적인 구분에 대해서는 강준만,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 개마고원, 2009, 18~24쪽.

10) 소설이 수록된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9 박태원 편』(태학사, 1988)에는 마지막 부분(『매일신보』, 1939. 5.17~5.21일 분)이 누락되어 있다. 이를 지적한 최초의 논의로 이경훈, 『박태원의 소설에 대한 몇 가지 주석』, 『구보학보』 5집, 구보학회, 2010, 345~380쪽 참고.

설 중에서 통속 소설로 꼽히는 작품인데 작품에 드러난 몇몇 고현학적 고찰은 흥미롭다. 배경은 서울이고 아래 인용 대목은 주인공 부부(애자와 희재)가 봄날 일요일 오후에 외출해서 맞닥뜨린 광경이다.

“아이 웬 사람들이예요?” 애자는 오래간만에 참말 오래간만에, 거리에 나오자 우선 놀란 것은 거리에 넘쳐흐르는 군중이었다. “참 야단들이로구먼” 희재도 눈을 둥그렇게 떴다. 올라가는 전차도 내려가는 전차도 차마다 만원인 것이다. (중략) ‘오는 전차마다 저 모양이어서는 창경원 안은 정말 법석일 꺼라. 우린 하여튼 종로로 우선 나가봅시다.’ 그래 종로까지 나간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또 망설이다가 결국 덕수궁을 찾기로 하였다. 덕수궁도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역시 창경원 속 같이 군중들로 하여 피로하지 않는다.¹¹⁾

주인공 부부가 “거리에 나오자 우선 놀란 것은 거리에 넘쳐흐르는 군중이었다.” “올라가는 전차도 내려가는 전차도 차마다 만원”이고 이래서는 “창경원”이나 “덕수궁”도 사람은 많을 것이고 “군중들로 하여 피로”하기 십상이다. 『명랑한 전망』은 박태원이 동시기에 발표한 소설, 『여인성장』(1941)이나 『애경(愛經)』(1940)과 같이 전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서울의 중상층이 등장하고 남녀 간의 엇갈린 애정전선이 줄거리를 이룬다. 소설에 흐르는 “군함행진곡”¹²⁾은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발표된 시기와 동시기임을 암시하는데 인용문 속 서울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전차는 “만원”이고 전차나 자동차를 타고 사람들은 창경원이나 어딘가로 몰려든다. “창경원 사쿠라가 요새 한창으로 야영도 내일부턴가 시작”한다고 하니 “점심 싸가지고 몰려들 드는 축”도 많을 것이다.¹³⁾ 『명랑한

11) 박태원, 『명랑한 전망』(1939),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9』, 214쪽.

12) “군함 행진곡을 휘파람으로 불며 자전거를 몰아 언덕을 내려” 오는 소년의 모습은 지극히 흥미롭다. 위의 글, 210쪽.

13) “어제 신문에도 창경원 사쿠라가 요새 한창으로 야영도 내일부턴가 시작이라지 않아? 그러니까 점심 싸가지고 몰려들 드는 축도 적지 많이 있을 거야.” 위의 글, 213쪽.

전망」속 서울 거리만 복적이는 게 아니다. 「애경」에는 극장 ‘명치좌’의 오전 풍경이 묘사되어 있는데 역시 만원이다. 소설의 주인공(신호)은 사람을 찾으러 극장에 가면서 “이 시각에 명치좌는 응당 만원일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과연 그렇다. “크락· 께이블 주연의 영화가 하나 마약 끝났을 뿐이라 장내에는 빈자리가 있을 틈 없었”¹⁴⁾으며 영화관은 휴식 시간에 쏟아져 나온 관객들로 복도가 복적거린다.

소설 속에 묘사된 이들 군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감안했을 때 이들 군중의 일상은 인상적이다. 사람들은 늘 가던대로 일요일 근교 나들이를 가고 오전부터 영화관으로 몰려든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시작되고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전쟁 동원 정책이 실시되고 일상에서의 국민화운동으로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전개된 당시에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소비 이외에 다른 소비를 억제할 것이 강조되었고 오락 유흥물 중에서도 특히 미국 외화는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크락· 께이블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는 여전히 인기를 얻고 청춘들은 서로 좋아하는 영화배우의 외모와 연기에 대해 잡담을 나눈다.¹⁵⁾ 결국 일요일의 여가로 창경원 나들이를 택한 「명랑한 전망」속 부부의 말을 빌린다면 “화창한 봄날 향기로운 바람은 그들의 상기한 양 볼에 청신하게도 감촉”되었으며 창경원 유원지의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은 한없이 “유쾌”하고 “명랑”해 보인다.¹⁶⁾

물론 소설의 등장인물에는 중상층이 있고 소설에 제시된 명랑한 감성의 정치적 성격, 나아가 ‘명랑한 전망’의 실상은 문제적으로 논의될 지점이 있다.¹⁷⁾ 하지만 소설의 명랑성을 따지기 이전에 군중의 무리, 그러니

14) 박태원, 「애경」(1940),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9』, 459쪽.

15) 「명랑한 전망」속 덕수궁 석조전 앞 잔디밭에서 영화배우를 흠모하는 여학생들의 즐거운 수다가 묘사되어 있다.(박태원, 「명랑한 전망」,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9』, 227쪽). 덕수궁을 찾은 애자와 희재 부부도 이 명랑한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16) 박태원, 「명랑한 전망」,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9』, 216쪽.

17) 소설에서 ‘명랑한 전망’은 소설의 마무리에 헤어지게 된 부부(희재와 애자)의 재결합으로 제시된다. 소설에 제시된 명랑한 전망에 대해서는 그 허구성과 관념성을

까 익명의 비조직적 집단에 대해 먼저 주목하고 싶다. 소설에 중상층이 등장한다고 해서 소설 속 “거리에 넘쳐흐르는 군중”들이 특정 계층의 인물들로 구성될 수는 없다. 유원지나 영화관의 사람들, 전차와 거리에 넘쳐나는 사람들 무리는 모두 상품 주위로 몰려든 익명의 무리들이다. 이들은 새로운 존재들인데 이전에 가난이 사람들을 한무리로 묶어냈다면 새로운 무리들은 상품의 제단 앞에 몰려든 무리들이기 때문이다.¹⁸⁾ 상점이 몰려있는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영화관의 관객이 되고 백화점 쇼펍객과 박람회 구경꾼이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1930년대 서울의 사람들로 말한다면 진고개(충무로와 남대문, 명동)와 종로 중심으로 도시 생활에 파묻혀 아스팔트에 발을 올려놓는 “거리에 헤매는 인종”¹⁹⁾들이 있었다. 『명량한 전망』 속 주인공 부부도 마찬가지다. “집안에 들어앉았긴 참말 아까운 날인데? 어디 교외로 가도 좋고, 좀 평범하지만, 창경원 덕수궁 같은 덴 또 어때?”²⁰⁾라는 말이 그들 나들이의 발단이다. 사람들을 거리로 이끄는 중심에는 다양한 문화·오락상품들이 있고 근대적인 교통 시설로 구성된 새로운 문화적인 의례로서의 산보, 영화관람, 근교 소풍과 관광이 형성된다. 자동차와 전차를 타고 창경원 꽃구경 가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교통순사, 여염 부녀, 여학생, 노점상, 기생과 매춘부, 타락청년, 걸인들이 도시의 군중을 이룬다. 더 이상 서울은 저녁이 되면 완전한 적막을 이루었던 도시가 되거나, 해만 지면 가게는 문을 닫고 행상이나 사람들이 사라졌던 종로 거리²¹⁾를 보여주지 못한다.

지적하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반면 명량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한 논의는 김미현, 『박태원 소설의 감성과 이데올로기-〈명량한 전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369~395쪽 참조.

18) 백화점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군중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오직 궁핍만이 그것을 알려줄 수 있었다. 발터 벤야민, 조형준 역, 『아케이드 프로젝트 1』, 새물결, 2005, 158쪽.

19) 이서구, 『실사(實査) 일 년 간, 대경성 암흑가 중군기』, 『별건곤』 1932.1, 34쪽(김영근,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99, 151쪽 재인용.)

20) 박태원, 『명량한 전망』,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9』, 213쪽.

거리의 군중이 소비도시 서울의 사람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 군중의 존재에는 서울 구경 온 시골 사람들을 비롯해서 풍문과 소문으로 들려오는 서울과 동경, 일본의 이야기를 ‘눈을 깜빡이며 듣던’²²⁾ 사람들과 이들이 나누어가졌던 환상과 욕망까지 포함되어야 타당하다. 즉 소비 문화를 가늠할 때는 실제 소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비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다수의 무리들까지 고려해야 한다.

소비대중은 익명의 존재들로 전통적인 농촌공동체에서 서로의 존재가 익숙했던 상황과는 다른 처지에 있다. 소비대중은 서로가 누구인지 모르는 점, 상품 앞에서 모두가 동일해지고 동등해진다는 점에서 무차별적인, 따라서 익명의 무리들이다. 사람들에게 주어질 단 하나의 ‘민주적인’ 이름은 <소비자>이다. ‘상품의 민주주의’ 앞에서 민족이나 인종의 위계, 성의 위계, 지역이나 계급의 위계는 작동하지 않았는데, 해당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화폐를 확보할 수 있으면 누구나 상품이 보장하는 문명과 행복의 세계로의 입장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소비대중의 존재는 전시기에도 확인된다. 식민지의 형태로든 제국의 형태로든 자본주의적 변화가 일어난 시기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대중적 현상은 전시기에도 나타났다. 소비대중의 욕망과 일상은 전시기에도 확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 노동하고 절약하는 국민이 요구되던 때에도 이전의 소비 관습이 이어졌던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시기에 두드러졌던 국민화 전략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고 내부 속에 끊임없이 외부를 만들어내는 전략이므로 ‘비국민화’ 양상은 광범위했

21) 19세기 말 서울을 방문했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말이다. 김영근, 앞의 글 145쪽 재인용.

22) “나가서 얻어온 이야기들/ 닭이 울도록/ 아버지께 이르노니-// 기름불은 깜빡이며 들고/ 어머니는 눈에 눈물을 고이신대로 들고/ 니치대던 어린 누이 안긴대로 잠 들며 들고/ 옷방 문설주에는 그 사람이 서서 들고// 큰 독 안에 실린 슬픈 물 같이/ 속살대는 이 시고를 받은/ 찾아 온 동네 사람들처럼 돌아서서 들고” 정지용, 『옛이야기 구절』(1927) 중 일부다. 이승원 주해, 『원본 정지용 시집』, 깊은샘, 2003, 328쪽.

으며 소비 행태는 그 중 하나에 속한다. 조선총독부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우려했는데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을 통제하고 포섭한 성과는 좋다고 볼 수 없었다.²³⁾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룸펜이나 걸인, 불량 소년, 암거래하는 사람들, 경제사범, 태업 노동자나 노는 학생들, 유곽촌의 술주정꾼들은 문제가 되었다. 이들의 양상은 각기 달랐지만 모두 ‘비국민화된’ 존재로 묶였다.

국민화/비국민화라는 명목은 대단히 험겁다. 실제로 이들이 문제가 된 점을 따져보자면 자본주의적으로 규율화된 즉 부지런히 일하고 일상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그럼에도 실패한다면 그건 자신의 노력 탓이라고 돌릴 수 있는) 근대적인 인간형과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고 파시즘 전략 역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규율화 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규율화 전략을 지적하면서 권명아는 비국민들 속 몇몇 ‘골칫거리’에 주목한바 있다. 협력층 엘리트가 제시했던 전시 동원 체제 하의 모범적이고 성실한 일상과 대책점을 이루는 것은 민족 해방 투쟁의 지사나 저항적인 엘리트보다는 이들 골칫거리일지도 모른다. 통제의 원리를 비웃으면서 연애질과 술 마시기, 놀러 다니고 시시덕거리기로 일상을 무위하게 보내던 이들이 규율화된 국민상과 가장 이질적으로 여겨졌으리라는 지적은 재미있다.²⁴⁾

하지만 비국민들의 존재는 특정한 골칫거리 무리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특정하게 소란을 피우는 무리들이 두드러졌고 불온한 존재로 치안과 통치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나 국민화가 규정한 비국민들의 소란과 소동의 가능성은 소비 행위 자체에 내재해있었다. 거리의 군중들을 보고 김기림은 “거기는 아무 도덕관념도 우리들 공통의 어떠한 문제도

23)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997, 119쪽. 오미일, 『총동원체제하 생활개선 캠페인과 조선인의 일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262쪽 참조.

24)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책세상, 2005, 124쪽. 권명아가 염두에 둔 것은 윤치호의 일기에 기록된 부지런한 일상이다.

생각되고 있지 않다. 다만 흥분이, 신경의 전율이 그들의 의식과 육체의 모든 부분을 액체와 같이 적시고 있다.”²⁵⁾ 표현한 적이 있다. 상품 소비를 통해 개인화되고 개체화된 무리들은 “공통의 어떠한 문제”나 “도덕 관념”을 공유하지 않았으며 화폐를 벌고 상품과 화폐를 교환하는 사이클을 따라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할 뿐이다.

전시기의 국민 만들기는 소비행위 자체에 팽배한 무질서와 자유, 반란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고자 했으며 이것이 바로 대중을 ‘재주술화’했던 구체적인 내용이다. 생산 노동에 비해서 소비 행위는 상대적으로 규율화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소비행위에 대한 훈련은 금주, 금연, 절약 등의 문화운동으로 근대 계몽기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전시기의 물자부족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절약이 강조되었고 절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소비 일상과 생산 노동을 직접 연결 짓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시기에 나온 국민생활 논의는 생산으로부터 떨어져나간 소비를 단속하고 다시금 국민생활이라는 틀에서 연결 짓고자 하는 전제를 지니고 있었다.²⁶⁾ 그리고 소비대중의 자유를 회수하여 다다르고자 했던 종착점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따라서 전쟁 물자를 비롯해서 사상과 경제를 지원하여 소모전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국민생활론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생활경제 논의는 “반드시 없어서는 불가할 소비 외에 허례에 소비되는 것이 태다(太多)”²⁷⁾하다는 근대적 훈육을 바탕으로 해서 ‘과소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유, 사익의 추구를 주안(主眼)으로 하는 옛 사상을 근본으로부터 청산”²⁸⁾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국민생활론이 겨냥

25) 김기림, 『바다의 유흠』(1931), 『김기림전집 5』, 심설당, 1988, 324쪽.

26) 국민생활론의 대표적인 논자로 오오코우치를 들 수 있다. 권창규, 『소비자 교육으로서의 국민생활 만들기』, 『현대문학의연구』 5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291~293쪽.

27) 배상철, 『가정생활의 개량』, 『조선(조선문)』 96, 1925.10, 75쪽.

28) 이는 곧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제일주의에 의해 모든 것이 갱생”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져 있다. 오미일, 『총동원체제하 생활개선 캠페인과 조선인

했던 사람들을 보자면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데 반발하는 사람들, 멋을 내는 사람들, 이전처럼 할리우드 영화를 못 보는 게 불만인 일상인들이다.

전시기의 일상에 주목한 여러 연구를 보면 소비대중의 행태가 잘 포착되어 있다. 댄디보이들은 면 대용품인 스파(스테이플 파이버) 양복이 모양 빠진다고 불만이었고 다방에서 유행 레코드를 즐기고 포카 게임을 즐겼다. 중학생이야 까까머리라 쳐도 전문학교 학생이며 대학생인데 머리를 뽀뽀 깎으라는 데는 불만이 속출했다. 유행 패션은 여전히 화제를 모았고 전쟁기의 여성 노동복 격인 ‘몸빼’가 권장되었어도 “맙시 있는 몸빼”, “몸빼의 스타일”은 인기를 얻었다. “나마비루”와 “양주”, 할리우드 영화도 금지되었거나 금기시해야 할 품목이었지만 인기가 여전했다.²⁹⁾

아래에 인용한 사진은 “폭서로 인하여 여름 왕국의 호화판”이었다는



출처: 「무하경(無夏境)인 송도원, 해수욕객이 운집, 『동아일보』(1937.8.24.)

의 일상, 261쪽 재인용.

29)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90~91, 337쪽. 공제욱·정근식,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180, 186쪽. 이경훈, 「긴자(銀座)의 추억: 식민지 문학과 시장」, 『현대문학의 연구』 3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330쪽.

해수욕장의 사진이다. 원산의 송도원 해수욕장에 “해수욕객이 운집”하여 “미증유의 대성황”³⁰⁾을 이룬 때는 1937년 8월, 중일전쟁이 개시된 지 한 달 여 후이다.

김기림은 “시민제군, 당신들에게 유쾌한 한여름을 제공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당신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XXX 해수욕장”의 포스터가 백화점 곳곳에 나부끼고 있는 걸 보았다고 했다. 그가 해수욕장 포스터를 증언한 수필(「바다의 유혹」)이 쓰인 때는 1931년 8월, 만보산 사건의 호외가 거리를 뒹굴 때였다.³¹⁾ 해수욕장 포스터는 1937년 여름에도, 그 후에도 여전히 나부끼고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여름 피서를 구성했던 자본의 리듬, 그러니까 피서용품과 상점을 비롯해서 철도와 전기, 자동차, 인근 숙박 시설과 휴가 주기는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3. ‘여성화된’ 소비대중과 “국책형 규수”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운동, 1941년 국민총력운동을 중심으로 전시기에 쏟아져 나온 많은 생활캠페인을 보면 국민화운동의 표적이 된 특정한 소비대중의 부류가 두드러진다. 일상의 소비 실천을 강조한 대목에서 국민화운동이 겨냥한 것은 도시(지역)-중상층(계층)-여성(젠더)의 소비 행위에 집중되어 있었다. 먼저 도시 지역을 살펴보자. “반도 애국반의 치열한 총후 활동에 관한 많은 미담가화가 생겨나고 있지만 이는 거의 대부분 농촌 지역이고 도시 애국반은 볼만한 것이 없다”³²⁾고 했다. 농촌은

30) 「천수백명을 돌파, 바다! 원산에 피서객」, 『동아일보』, 1937.8.9.

31) (여름 바다를 간) “꿈을 깨니 머리맡에는 만보산 사건의 호외가 뒹군다. 나는 급시(急時)로 영원한 청춘의 고향인 바다의 정열의 나라 아래서 멀리 구름 밖에 난듯한 막연한 공허가 가슴 속에 차오는 것을 느꼈다.” 『김기림전집 5』, 325~326쪽.

32) 「都市愛國班奮起す」, 『국민총력』 2권 12호, 1940.12, 105쪽. “도시 정동의 활동은 불가능하다.” 「難局打開の指針 都市精動の内容整備」, 『경성일보』 1940.4.5(오미일),

1930년대 초부터 농촌진흥운동(“농산어촌진흥운동”)이 전개되면서 재조직의 대상으로 주목받았고 농촌진흥운동은 생활개선운동으로 이어진 바 있다. 농촌 지역의 생활운동에서는 생산력 증대 항목이 빠지지 않았고 소비 항목에 관해서라면 관혼상제를 둘러싼 허례허식이 가장 문제가 되었다.³³⁾

반면 도시는 광범위한 소비행태가 문제가 되었고 주목을 받았다. 농촌과 달리 자급자족의 가능성이 낮았던 도시의 사람들은 구매에 의존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³⁴⁾ “소위 유행하는 것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중소도시에서 농촌으로 침윤하는 것”³⁵⁾이라는 말은 소비자본주의 초기에 더욱 공고했던 상품 소비의 위계를 가리키면서 서울과 대도시의 행태를 겨냥하고 있다.

소비 도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중상층 (가정)이 문제가 되었던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생활상의 소비를 절약”하고 “사생활상의 쓸모없는 것을 없애는 것”³⁶⁾ 것이 생활개선의 내용(“생활신체제”)이 주요 내용이 되었으므로 중상층 가정의 소비 풍속이 문제가 될 소지가 컸다. 1941년에 발표된 박태원의 소설 『여인성장』에는 은행 사장(두취)이라는 최상층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소비 풍속을 참고할 수 있다. 전시기에 술을 구하기도 어렵고 생활물자도 절약하라는데 등장인물들은 맥주에 메롱에

「총동원체제하 생활개선 캠페인과 조선인의 일상」, 262쪽 재인용.

33) 생활개선운동이 도회의 가정부인을 주체로 호명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津田節子, 『現代朝鮮の生活とその改善』(今日の朝鮮問題講座(5)), 京城:綠旗聯盟, 1939. 도시 유행 의복에 대한 규제가 세세하게 드러나 있고 내지 부인에서 조선 부인으로 전달되는 계몽의 루트가 잘 드러나 있다. 농촌 여성과 도시 여성의 동원 양상에 대해서는 히구치 유이치 논의 참조. 樋口雄一, 『戰時下朝鮮の農民生活誌: 1939-1945』, 社會評論社, 1998, 221~237쪽.

34) 허영란, 전시체제기(1937~1945) 생활필수품 통제 연구, 『국사관논총』 88집, 2000, 290, 300쪽.

35) 이종민, 「전시하 애국반 조직과 도시의 일상 통제」, 『동방학지』 124권, 동방학회, 2004, 848쪽 재인용.

36) 국민총력조선연맹, 『국민총력독본』, 경성:국민총력조선연맹, 1941.(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기 한국 사회 자료집 6』, 77쪽.) 중류 이상의 가정 풍속이 집중 공략된 부분은 같은 책, 120쪽.

잘만 먹고 ‘흙부라’를 이어가고 ‘가네보’에 좋은 치맛감을 사러간다. 애국 반상회에서 방공호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부민관에 음악회 구경을 가는 나들이가 기쁘고 즐겁게 여겨진다. 국산 애용이 강조되었지만 일본산 ‘캡피’보다는 프랑스산 ‘코티’가 좋다며 코티를 사재기해두기도 하는 비국민의 행태는 소설 속에서 심심치 않게 묘사된다.

『여인성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최상층이 아니라도 문화적인 가정의 표상은 실제로 갖가지 상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고 가정이 소비 단위(이자 재생산 단위)로 부상하면서 문화적, 문명적인 가정의 표상은 각종 생활용품과 문화상품 소비를 통해 구축될 수 있었다. 도시의 중상층 가정들이 주축이 되어 새로운 상품을 둘러싼 소비의식을 갖추면서 물질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 신(식)가정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전시기에 다시금 중상층 가정이 표적이 되는 양상은 흥미롭다.

상품 판매의 전략에서나 국민화 운동의 전략에서나 가정은 모두 중심에 있었다. 상품 보급 전략은 “2000만 개인 분자”를 공략하기 위해 “450만 가정 분자”를 공략하고자 했다. 일례로 1930년대 들어서 보급되기 시작한 라디오의 판매 전략에서 “가정을 떠나서 라디오의 생명은 적다”라고 한 것은 라디오가 가정오락의 매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판매 전략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³⁷⁾

소비주의의 기초 분자로 공략되었던 가정은 전시기의 국민화운동에서 “我家의 총동원”³⁸⁾이라는 명목으로 주목을 받았다. “생활혁신”의 핵심은 가(家)를 점유하는 것이 된다. 공적인 생산노동 공간에 비해 사적인 공간인 가정이 상대적으로 규율화 되어있지 않았다는 사실, 즉 학교나 군

37) 경성방송국의 조선어방송과장(윤백남)의 말이다.(유선영 외, 『한국의 미디어 사회 문화사』, 한국언론재단, 2007, 324쪽 재인용). “450만이라는 가정 분자”는 잡지 『신 가정』의 창간사(『신가정』 1933.1, 2쪽)에 나온 말이다.

38) 이각중 편, 『국민정신총동원독본』(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기 한국 사회 자료집 6』, 49쪽.)

대, 회사, 관공서와 공장에 비해 가정이 상대적으로 규율화되어 있지 않
았다는 사실은 가정이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단위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시장에 점유된 가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단속할 필요가 생겼음을 말
해준다. 즉 <기업-가부장>과 <국가-가부장>은 서로 가정을 점유하고자
각축했으며 국가자본주의로의 개편이 두드러졌던 전시기 상황에서 표면
적으로는 국가-가부장이 전면에 나섰던 것이다. 국가-가부장이 부상하는
데 결합했던 천황제 가부장제라는 일본 과시즘의 사상적 논리는 일본 황
실이 증가가 되어 일대 가족 체계를 이루는 구조를 역설했다.

‘애국반’이라는 가가호호 단위의 조직화에도 잘 드러나듯이 가정이 국
민화운동의 기초 단위로 지목된 것은 지적되어 왔다.³⁹⁾ 신문과 잡지의
기사나 보급용으로 제작된 독본 형태의 국민운동 지침서들을 보아도 그
렇다. “경제갱생은 가정에서 생활개선의 구체책”을 강구하고 “가정 중심
생활 개선”⁴⁰⁾을 외치는 목소리는 높았다. 그리고 “경제 갱생은 가정에서”
부터라는 구호와 “생활개선의 실행은 가정부녀로부터”⁴¹⁾의 구호는 멀리
떨어져있지 않았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국민총력운동에서 부각된 운
동의 중심축은 가정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가정의 주체로 호명된 ‘부인’
이었다.⁴²⁾ 도시의 가정이 소비의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중
상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가정부인은 상품의 생산보다는 구입과 소비를

39) 참고로 식민지시기부터 한국전쟁기까지 동회(洞會)를 동원의 단위이자 저항의 단
위로 조명한 연구로는 김영미, 『동원과 저항』, 푸른역사, 2009.

40) 「경제갱생은 가정에서 生活改善의 具體策- 부인회 조직하야 지도 선전, 기술적 훈
련에 주력」, 『매일신보』, 1937.1.14. 「가정중심생활개선」(『매일신보』, 1941.8.3.)은
국민총력경성부연맹의 결의 내용을 보도했다.

41) 「생활개선의 실행은 가정부녀로부터」, 『매일신보』, 1936.5.29. 전시기에 가정부인을
주목한 기사를 예를 들자면 「生活改善에 中心될 指導婦人 再教育」, 『매일신보』,
1938.5.2. 「비상시를 맞아 더욱 가정 개선에 힘써야- 家庭生活改善座談會」, 『여성』,
1939.2, 18~23쪽.

42) 하지만 반상회라는 공적인 활동은 집안의 연장자나 남자의 일로 여겨지면서 여전
히 여성이 며느리의 신분에서 묶여있는 경우도 많았다. 안태윤, 「정책과 현실 사이
의 ‘불온한’ 균열」, 하야카와 노리요 외, 이은주 역, 『동아시아 국민국가 형성과 젠
더』, 소명출판, 2009, 193쪽.

책임지는 가계 주체로 호명된 바 있다.

소비자로서의 부인상이란 노동력과 전투력으로 요구되었던 모범적인 남성상에 대응하는 여성상으로 흥미롭게도 <가정=시장>을 비유적인 의미의 전장으로 바꾸고 전장 안에서의 모범적인 처신으로서의 합당한 소비 행위를 요구한 결과다. 소비 절약을 실천하는 주부, 아내이자 어머니상이 그것이다. 이상화된 여성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곳으로 시장이 지목되었다는 점은 노동력 재생산과 소비를 담당했던 가정이 시장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점, 합리적인 육아용품과 생활용품의 구매자가 문화가정의 주체로 부각된 상황에서 다시 전시기에 적합한 여성상을 재조립할 필요가 생겨났을 때 소비자로서의 부인의 역할이 재강조되었음을 보여준다. 국민화운동에서 가정부인의 소비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문화가정의 이상 및 가정의 시장화에 발맞추었던 지배 권력이 다시금 <가정=시장>을 조절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을 말해준다.

국민화운동이 문제 삼았던 가정부인의 소비 행위를 논의했으나 여전히 미진하게 해명된 부분이 있다. 소비 단위로서의 가정과 부인 주체가 공략됐다고 해서 소비 대중 속에서 여성이 부각될 까닭은 없다. 소비하고 유희하는 대중들 속에서 여성이 쉽게 두드러졌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라. 소비 행태를 떠올렸을 때 ‘반지 끼고 굽 높은 구두 신고 파마머리에 기괴한 모자를 쓰고 총후를 어지럽히게 하는 행동’⁴³⁾을 하는 여성들의 이미지를 떠올리기는 어렵지 않다. ‘나마 비루’를 찾고 ‘스파’ 양복이 불만인 댄디보이들, 여성의 꿈무늬를 따라다니는 모던보이들, “얼굴과 몸과 걸음걸이만을 아름답게 보고 현대 여성과 결혼한 현대 남자들”⁴⁴⁾이 입방아에 오르내렸지만 이들 남성보다는 낭비하는 여성이 소비대중의 표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유희하는 대중들 속에서 여성이 부각된 까닭은 무엇일까? 소비주의 비판은 일차적으로는 공적 영역의 중심 주체가 되지 못했던, 따라서 사적

43) 오미일, 앞의 글, 258쪽.

44) 김광섭, 『여성과 사치』, 『여성』, 1940.9, 32쪽.

영역으로 떨어져 나와 소비 주체로 등장한 여성에게로 향하기 쉬웠지만 ‘여성화된’ 대중에 대한 편견과 맞물려 있었다.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며 비합리적인 대중은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남성 엘리트와 대조를 이뤘다. 이들 여성화된 대중 속에는 여성(젠더), 아만인(인종), 어린아이(연령), 프롤레타리아(계급)의 표상이 한데 묶여 있었고 이들은 파괴와 혼란, 무질서와 충동을 함의하는 이미지로 표상되어 왔다.⁴⁵⁾

소비하는 여성은 왜 위협적으로 여겨졌는가, 그러니까 소비하는 여성이 위협한 것은 무엇인가? 결국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적인 소비 단위로서의 가정은 일본 천황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할 대상으로 기업 가부장과 국가 가부장이 치열하게 각축, 결탁하는 곳이었다. 소비하는 여성들의 욕망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쾌락주의의 조장은 개별 남성 자본가에게는 중요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지만, 쾌락주의가 남성과 여성의 내밀한 관계와 가부장제적 가족 구조에 끼치는 영향은 전복적이고 잠재적으로 파괴적이다.”⁴⁶⁾ 따라서 소비를 통해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맛 본 일부 신여성들을 전통적인 어머니와 부인의 틀로 얼마간 회수할 필요가 있었다. 현대라는 신체제에서 신여성의 단속과 재조직이 필요했으므로 ‘신여성’이 아닌 ‘현대여성’이라는 명명이 대두되기도 했고⁴⁷⁾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구여성’과 겹

45)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대중독재와 여성』, 휴머니스트, 2010. 군중 재현에 대해서 이성욱, 『한국 근대 문학과 도시성 문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188~209쪽 참고. 이성 및 자기 절제와 동일시되었던 부르주아 남성성과 달리 여성 존재는 감정적, 수동적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은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성화된’ 대중에 대한 편견도 작용했지만 실제로 여성의 소비가 가져올 결과는 가히 위협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여성들의 경제적 무절제는 여성이 실제로 남성을 경제적으로 착취할 수도 있고 소비 주체로서의 여성이 전통적인 도덕적, 종교적 권위의 형식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의 젠더』, 자음과모음, 2010, 124, 165, 143쪽.

46) 위의 책, 143쪽. 여성들의 경제적 무절제는 성적 무절제와 연결되어 문제시되었다. 같은 책, 123쪽.

47) “현대 여성이란 말은 신여성이란 말의 조금 진화한 말인 동시에 구여성이란 말에 대립된 말”이라 설명했다. 이원조, 『여성시평: 현대 여성의 변민』, 『여성』, 1940.11,

치는 점이 많았다.

현대 여성이 지닌 구여성의 면모를 박태원의 『여인성장』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소설에는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 “국책형 규수” 명숙이 등장한다.⁴⁸⁾ 명숙이가 “그, 요새말루 하자면, 아주 국책형으루 된 규수야!”라는 소리를 듣는 까닭은 “명숙이가 저의 또래의 다른 젊은 여성과는 아주 달라서, 미용원도 모르고, 구경도 잘 안다니고, 옷가지에도 별로 탐을 내는 일이 없이, 어머니를 도와서 똑 가사에만 부지런하였던 까닭”이다.⁴⁹⁾ 명숙이가 지닌 여러 가지 ‘미덕’ 중에서 국책형 규수가 되는 데 빠질 수 없는 요건은 “어머니를 도와서 똑 가사에만 부지런”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명숙과 대조적인 인물로 그려진 숙경을 보자. 숙경은 “미용원에만 드나드느니 구경만 좋아하느니 밥 하나 지을 줄 모르느니”하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숙경의 성장은 『여인성장』의 주요 서사를 이룬다. 숙경은 이화여전 출신으로 혼자 다방에 가서 소다수를 주문할 수 있는 인물이며 맥주를 따르는 게 어색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는 결정적으로 지진 머리와 양장이 잘 어울린다. 전시기에 낭비하는 여성의 표상처럼 여겨졌던 지진 머리와 양장의 이미지를 떠올려본다면 숙경의 매력은 좀 곤란하다. 소설의 급격한 결말에 이르러 숙경이 성장하기 전까지 숙경이가 쉽게 비난받는 까닭은 “요새말로 하자면” 국책형 규수가 아니고 요새말로 해서 그렇지 국책형 규수란 구여성과 다르지 않게 비친다. 낭비하고 유희하는 부인⁵⁰⁾

26쪽.

48) 국책형 규수에 주목한 논의로 이경훈, 「긴자의 추억」, 하신애, 「식민지 말기 박태원 문학에 나타난 시장성」, 『상허학보』 32집, 상허학회, 2011, 313~355쪽. 권창규, 『상품의 시대』, 민음사, 2014, 358~364쪽.

49) 박태원, 『여인성장』, 깊은샘, 1989, 175쪽.

50) 낭비하는 여성들은 미디어에서 자주 표상되었다. “도무지 생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면서 매끈하게 차리고 영화관에나 가고 식당에서 밥이나 먹고 자동차 타기만 좋아하고 또 어느 잘 사는 집 여자 동무 하나 왔다 가면 집안에 말다툼이 벌어지고 싸움판이 터진다.”(김광섭, 「여성과 사치」, 『여성』, 1940.9, 32쪽). “이즘 늦게 일어나선 식모가 해준 밥을 먹군 미용원이다, 백화점이다, 영화관”으로 향하는 인물

과 대조적으로 제시된 ‘절약부인’도 국책형 규수의 한 가지 유형이며 외양은 구여성에 가깝게 제시된다.



최일수(崔永秀) 만화, 「절약부인」, 『가정지우』, 1939.2, 조선금융연합회, 323쪽. 절약부인에 어울릴만한 외양은 양장보다는 치마저고리 쪽이다. 만화는 ‘절약부인’이 술병과 철사 토막, 생철통을 주워 모아 “XX 금융조합”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낭비하는 숙경이들이 비난받는 결정적인 까닭은 현모양처와 어긋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새말로 국책형 규수”의 정체는 현모양처로 집약될 수 있다. 현모양처상은 구식과 신식이 묘하게 결합된 형태인데 가계 경영의 주체로서 여성을 호출하는 신식 존재이자 여전히 남성 가부장제에 종속된 구식 존재이다.⁵¹⁾ 따라서 현모양처는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규율이 만

이 그들이다.(최정희의 소설 『장미의 집』, (1942), 최지현, 『1940년 국가의 여성 동원과 불온의 정치학』, 『여성문학연구』 33, 2014, 137쪽 재인용). 이태준의 『행복에의 흰 손들』(1942)에 등장하는 화옥이는 가사노동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여가 유흥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의도 재미있다. (김다혜, 『여학생 수다와 전쟁』, 『상허학보』 41, 2014, 49쪽).

들어낸 여성상이라 할 수 있다. 현모양처상에 어긋나는 사람들, 이를테면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신여성적 정체성은 ‘동양적인’ 부인 정체성과 대조를 이루는데 반서구와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한 일본 과시즘 논리가 이를 뒷받침했다는 사실은 지적된 바 있다.⁵²⁾

‘동양’ 부인의 면모로도, 구여성의 면모로도 표현될 수도 있지만 현실 상황에서 현모양처로서의 국책형 규수라는 <현대-여성-국민상>은 상당히 전통적인 외양을 띠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인종의 삶과 닮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자본과 국가의 요구처럼 궁핍한 물자 사정을 견디고 견디라는 맥락에서다. 궁핍과 결핍을 무조건 견디라는 국가적 요구에 맞닥뜨렸던 부인들은 물론 종래의 ‘병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으로 집약되는 인고하는 주체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계 소비의 주체라는 점에서 달랐다. 다만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는 것이 전시기의 합리로 재정의되었으므로 “인종의 미덕”⁵³⁾이 부상되었을 뿐이다.

4. <가정=시장=전장>을 둘러싼 국가자본주의적 기획

전시기의 공식적인 생산 확충 정책(병참기지정책, 결전재편성정책)과 달리 생활캠페인 차원에서는 소비 훈련이 두드러졌다. 전시기의 소비 훈련은 근대 계몽기 이후 절연과 금주, 절약의 형태로 실시되어 왔던 문화

51) 현모양처라는 신식 여성상에 대해서는 홍양희, 『한국: 현모양처론과 식민지 ‘국민’ 만들기』, 『역사비평』 52, 역사문제연구소, 2000, 364~374쪽 참고.
 52) 여성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대한 현실적 답론이 삭제되면서 급진적 신여성의 정체성은 전면 부정되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의 과시즘에서도 두 여성상은 모두 거부되었다. 권명아, 『역사적 과시즘』, 260쪽.
 53) “인종의 미덕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생활의 실질적인 지지자가 되어있다는 것”. 윤규섭, 『현대 여성의 위치』, 『여성』, 1940.10, 28~29쪽.(권명아, 『역사적 과시즘』, 200~201쪽 재인용.)

운동의 연장선에 있지만 통화 증발(增發)과 생활물자의 궁핍으로 요약될 수 있는 전시기의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내핍이 강조됐다. 표면적인 요구를 보면 아껴 쓰고 만들어 쓰고 되도록 쓰지 말라는 극단적인 절약 실천이 그 내용이다.

전시기에 두드러졌던 국민 만들기 전략은 다양한 비국민 내지는 국적(國賊)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했는데 이들 중에 “놀고먹는 사람들”, “무생산의 소비 계급”이 있었다. 소비 훈련이 강도 높게 실시되면서 몇몇 문제아들이 도드라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유흥을 찾고 낭비하는 비국민의 존재는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데 반발하고 강요된 복장에 불만을 갖고 멋을 부리며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었다.

비국민들의 유흥과 소란, 낭비, 무질서의 가능성은 대중 전체에 편재해 있었다고 하겠는데 소비 행위 자체가 지닌 무질서와 자유 때문이다. 도시의 아스팔트에 발을 올려놓는 거리의 사람들, 남대문과 명동을 어슬렁거리는 ‘혼부라’들, 오락 영화에 몰려든 사람들, 상점과 백화점 쇼윈도 앞에 몰려든 사람들, 일요일이면 인근 유원지를 찾고 여름이면 피서지를 찾는 문화 소비의 관례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들이다. 실제 소비 관례를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문화 관례를 전망했던 많은 사람들도 소비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소비대중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전시기 서울의 모습이 곳곳에 재현된 박태원의 소설 속 인물들을 보면 정오가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일제히 묵도하는 길거리 풍경이 펼쳐지고(『애경』) 매월 초이레 애국반상회가 열리는 중에서도(『여인성장』) 반상회 보다는 부민관의 음악 콘쿨을 보러가고 싶어하고 국산 애용이 강조되어도 프랑스산 화장품에 눈길을 주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국민화의 요구로부터 소비 대중이 미끄러져 나갈 가능성은 편재되어 있었지만 익명의 대중들 속에서 도시(지역)-중상층(계층)-여성(젠더)들이 부각되어 국민생활 캠페인의 표적이 되었다. 물품 구매에 의존하는 도시 생활 속 소비문화의 중심축에 있었던 중상층은 <아껴 쓰고 만들어 쓰

고 되도록 쓰지 않기>라는 요구를 가장 비껴나가기 쉬웠던 사람들이다. 특히 국민화운동이 가정을 중심 단위로 호출하면서 낭비하는 여성을 호출한 것은 ‘여성화된’ 대중에 대한 편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소비 주체로서의 여성을 단속하는 담론 속에서 낭비하는 여성들을 돌려보내고자 했던 가정이나, 가정 안에서의 바람직한 역할로서 제시됐던 현모양처상이 모두 시장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낭비하는 여성들이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가정도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의 공사 분리에 따라 가장 사적인 공간이자 소비 단위로서 시장에 포섭되어 있었다. 현모양처는 여성이 국민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조건으로 제시된 셈인데 현모양처 역시 자본주의적으로 규율된 여성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전 가부장제에서처럼 현모양처는 남성 가장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가계 경영의 주체로 요청되었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요청한 신여성상인 것이다. 소비하는 부인을 두고 뜨거웠던 담론의 장은 전시기에 <기업-가부장>과 <(천황제)국가-가부장>이 가정-여성을 두고 각축했던 현장을 보여준다.

전시기에 국가 정체성은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만들어낸 차이를 통합할 대안으로 여겨졌지만 사실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기획으로 고안될 수밖에 없었다. 세계전쟁부터가 그러했다. 전쟁은 시장의 가장 큰 소비자로 “시장이 요구하는 외부”⁵⁴⁾로 기능했으며 일상 속 전쟁 동원의 여러 가지 전략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민운동의 사상적 걸개는 <반자본주의/반개인주의= 서구 근대 극복⇒ 동양적 근대 건설>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자본주의적인 기획으로 진행되었는데 국민운동이 집중 공략했던 가정과 가정 주체인 주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가정주부는 <가정=시장=전장>, 곧 시장화된 가정에서의 전투로서의 소비 행위를 통해 국민되기를 증명해보일 것을 요구받았다. 이는 ‘여성은 전장에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힘을 보여주어야 동등함을 증명할 수 있을

54) 우에노 치즈코, 이승희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197쪽.

것”⁵⁵⁾이라는 논리와 닮았다.

도시 중상층의 가정부인을 비롯해서 낭비하는 비국민들을 폭넓게 단속하고자 했던 소비 훈련을 따져보면 노동력으로 사회화한 산업 체계가 소비력에 대해 훈련을 실시한 것, 구체적으로는 생산노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훈육한 것이었다. 전시기의 극단적인 절약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아껴 쓰고 만들어 쓰고 되도록 쓰지 말라로 요약될 수 있지만⁵⁶⁾ 국민생활이라는 틀에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고자 했다. 소비가 너무 자유롭거나 무질서하지 않도록 단속하려는 소비 훈련이 국민생활 논의의 내용이다.

그런데 유흥 대중의 욕망은 억압되어야 했을까, 이 물음이 남아있다. 대중의 욕망은 억압될 수도 없었고 곳곳에서 흥청거렸지만 또한 반드시 억압될 필요도 없었다. 대중의 유흥은 탈현실의 기제로서 사람들을 일시적이거나 만족하게 만들고 비참하고 억압적인 현실을 위안하는 데 소용될 수 있었다. 또한 한반도가 실제 전쟁의 무대가 아닌 이상 얼마간의 명량한 일상은 보장받을 수 있었고 명량은 신체제의 정서로 권장되기도 했다.⁵⁷⁾ 나아가 건전 오락과 명량성의 모토 아래 전시기의 문화행정에서 스포츠 신체 활동이나 오락, 여행이 권장되기도 했으며 어디까지가 ‘전쟁 테크놀로지’이며 어디부터가 실제적인 유희인지 구분되기 어렵기도 했다.⁵⁸⁾

55) 1930년대 중국에서 활발하게 벌어졌던 국산애용운동 슬로건 중 하나다. Karl Gerth, *China made*, p.285.

56) 전시기에는 일방적인 내핍이 강조되었지만 현실을 보면 일방적인 요구는 맞지 않았다. 소비층의 부정행위는 단속의 대상이었으나 물품 부족으로 암거래는 성행할 수밖에 없었고 배급 체제는 엉성했다.(허영란, 「전시체제기 생활필수품 통제 연구」, 289~330쪽.) “돈 가지고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대목이 물자 사정을 잘 말해준다.(명신중학교 김용관, 「대용품 이야기」, 『가정지우』, 1939.12, 4~7쪽.) 절약하라, 절약하라는 요구는 높았지만 ‘물자가 있어야 절약을 하지’라는 회고담은 정책과 현실의 분리를 선명히 보여준다. 안태윤, 앞의 글, 201쪽.

57) 참고로 박숙자, 「“통쾌”에서 “명량”까지: 식민지 문화와 감성의 정치학」, 『한민족 문화연구』 30권, 2009, 213~238쪽. 김철, 「우울한 형/명량한 동생- 중일 전쟁기 ‘신세대 논쟁’의 재독(再讀)」, 『상허학보』 25집, 상허학회, 2009, 153~191쪽.

58) 김예림, 「전시기 오락정책과 ‘문화’로서의 우생학」, 정용화·김영희 외, 『일제하 서

무엇보다 자본의 이해는 비상시국에도 돌아가고 있었다. 국가는 대중의 욕망과도 자본의 욕망과도 얼마간 타협하고 얼마간 합의를 보아야 했다. 영화 오락은 ‘건전’해야 했지만 관객들이 여전히 할리우드 영화에 열광하고 있다면? 건전과 거리가 먼 ‘비속한’ 악극과 어트랙션도 흥행을 거듭하고 있었다.⁵⁹⁾ 더구나 극장의 조세 수입은 총독부의 전체 조세 수입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일본 자본이 장악한 극장계의 조세 수입은 결국 전쟁 비용으로 회수될 식민지적 운명에 놓여있었다.⁶⁰⁾ 앞서 거론했던 해수욕장의 풍경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보자면 해수욕장에 모여든 대중들의 유흥은 전쟁과 대조적인 풍경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피서 유흥을 구성했던 자본의 이해나 전쟁 국가의 이해와 맞물려 돌아갔던 것인지 모른다.

식민지의 형태로 경험한 초기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오늘날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기 시작한 국가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들면서 국가와 자본의 결탁 양상, 그 속에서의 소비대중의 존재를 여전히 주목하게 만든다. 이는 두고 생각할 논제로 남겨둔다. 본 논의에서는 전시기의 국민화 과정이 대중을 강제적으로 균질화하려고 했던 과정이 아니라 얼마간은 타협하고 합의하며 훈육하며 강제했던 과정을 예비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무엇보다 대중이 단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으로도, 그렇다고 민족이나 계급으로도 수렴되지 않았던 대중의 다종다기함이 소비의 욕망과 주체되기에서 비롯된 것임은 거듭 강조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마르크스의 유산 하나. 공황이 자본주의의 파국이 아니라 필수적인 운동이라는 점, 그리고 공황을 해소할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서의 전쟁이라는 소

구분화의 수용과 근대성』, 해안, 2008, 217~247쪽.

59) 이화진, 「전쟁과 연예 - 전시체제기 경성에서 악극과 어트랙션의 유행」, 『한국학연구』 36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2, 315~360쪽.

60) 이승희, 「세금으로 본 흥행시장의 동태론」, 『한국문학연구』 4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1, 141~185쪽. 유선영, 「황색 식민지의 서양 영화 관람과 소비의 정치, 1934~1942」, 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433~488쪽.

모전이 이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운동의 한가운데서 많은 생명을 위협했던 전쟁의 비극이 전개되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국민총력조선연맹, 『국민총력독본』, 경성:국민총력조선연맹, 1941(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기 한국 사회 자료집 6- 전시총동원의 이데올로기 교육과 독본』, 선인, 2005.)
- 김기림, 『바다의 유혹』(1931), 『김기림전집 5』, 심설당, 1988.
- 박태원, 『명량한 전망』(1939),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9 박태원 편』, 태학사, 1988.
- 박태원, 『애경』(1940),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9 박태원 편』, 태학사, 1988.
- 박태원, 『여인성장』, 깊은샘, 1989.
- 이각중 편, 『국민정신총동원독본』, 경성신민사, 1938.(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기 한국 사회 자료집 6』, 선인, 2005.)
- 『무하경(無夏境)인 송도원, 해수욕객이 운집』, 『동아일보』, 1937.8.24.
- 최일수 만화, 『절약부인』, 『가정지우』, 1939.2, 조선금융연합회, 323쪽.
- 津田節子, 『現代朝鮮の生活とその改善』(今日の朝鮮問題講座(5)), 京城:綠旗聯盟, 1939.
- 그 외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신가정』, 『여성』

2. 단행본

- 강준만,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 개마고원, 2009, 18~24쪽.
-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124쪽.
- 권창규, 『상품의 시대- 출세·교양·건강·섹스·애국 다섯 가지 키워드로 본 한국 소비 사회의 기원』, 민음사, 2014, 358~364쪽.

- 김영미, 『동원과 저항- 해방 전후 서울의 주민사회사』, 푸른역사, 2009.
- 김예림, 「전시기 오락정책과 ‘문화’로서의 우생학」, 정용화·김영희 외, 『일제하 서구문화의 수용과 근대성』, 혜안, 2008, 217~247쪽.
- 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기 한국 사회 자료집 4- 총독부의 경제정책과 전시 생산력확충계획』, 선인, 2005, v쪽.
-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대중독재와 여성』, 휴머니스트, 2010.
- 안태윤, 「정책과 현실 사이의 ‘불온한’ 균열」, 하야카와 노리요 외, 이은주 역, 『동아시아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소명출판, 2009, 182~205쪽.
- 유선영, 「황색 식민지의 서양 영화 관람과 소비의 정치, 1934~1942」, 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433~488쪽.
- 유선영·박용규·이상길 외,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한국언론재단, 2007, 324쪽.
- 윤해동, 「식민지 근대와 대중사회의 등장」, 임지현·이성시 편,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20014, 235~263쪽.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진실과 화해, 미래를 위한 진상 규명』, 2005.
- 정성진 편, 천경록·이수현 역,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책갈피, 2009, 36쪽.
-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997, 119쪽.
- 발터 벤야민, 조형준 역, 『아케이드 프로젝트 1』, 새물결, 2005, 158쪽.
-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의 젠더』, 자음과모음, 2010, 124쪽.
- 우에노 치즈코, 이승희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197쪽.
- Karl Gerth, *China Made: Consumer and the Creation of the N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3, p. 289.
- 樋口雄一, 『戰時下朝鮮の農民生活誌: 1939-1945』, 社會評論社, 1998.

3. 논문

- 권창규, 「식민지시기 한국에서 전개된 일상 합리화운동- 전시기의 소비 통제와 소비 대중의 국민화」, 『인문연구』 69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605~630쪽.
- 권창규, 「소비자 교육으로서의 국민생활 만들기- 전시기(1937~1945)의 국산 소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54집, 한국문화연구학회, 2014, 285~308쪽.
- 김다혜, 「여학생 수다와 전쟁」, 『상허학보』 41, 상허학회, 2014, 9~58쪽.
- 김미정, 「전시체제가 조선총독부의 여성노동력 동원정책과 실태」,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15.
- 김미현, 「박태원 소설의 감성과 이데올로기- <명량한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51, 2013, 369-395쪽.
- 김영근,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경성의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1999.
- 김철, 「우울한 형/명량한 동생- 중일 전쟁기 '신세대 논쟁'의 재독(再讀)」, 『상허학보』 25집, 상허학회, 2009, 153~191쪽.
- 류수연, 「전망의 부재와 구보의 소실(消失)- 박태원의 「명량한 전망」, 「애경」, 『여인성장』에 한 연구」, 『구보학보』 5, 구보학회, 2010, 97~128쪽.
- 박숙자, 「“통쾌”에서 “명량”까지: 식민지 문화와 감성의 정치학」, 『한민족문화연구』 30권, 한민족문화학회, 2009, 213~238쪽.
- 박진숙, 「박태원의 통속소설과 시대의 '명량성」, 『한국현대문학연구』 27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09, 207~239쪽.
- 오미일, 「총동원체제하 생활개선 캠페인과 조선인의 일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235~277쪽.
- 윤소영, 「근대국가 형성기 한·일의 '현모양처'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4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77~119쪽.

- 이경훈, 「긴자(銀座)의 추억: 식민지 문학과 시장」, 『현대문학의 연구』 3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309~344쪽.
- 이경훈, 「박태원의 소설에 대한 몇 가지 주석」, 『구보학보』 5집, 구보학회, 2010, 345~380쪽.
- 이상의, 「1930-40년대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동원 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03.
- 이성욱, 「한국 근대 문학과 도시성 문제: 도시문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문과 박사논문, 2002.
- 이승희, 「세금으로 본 흥행시장의 동태론」, 『한국문학연구』 4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1, 141~185쪽.
- 이혜령, 「근대 미디어로서의 극장과 식민지시대 문학 장의 동학: 식민지 군중과 개인-염상섭의 『광분(狂奔)』을 통해서 본 시론」, 『대동문화연구』 69집,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485~527쪽.
- 이종민, 「전시하 애국반 조직과 도시의 일상 통제」, 『동방학지』 124권, 동방학회, 2004, 839~881쪽.
- 이화진, 「전쟁과 연예-전시체제가 경성에서 악극과 어트랙션의 유행」, 『한국학연구』 36집, 2015, 315~360쪽.
- 장미화,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여성동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박사논문, 2007.
- 최지현, 「1940년 국가의 여성 동원과 불온의 정치학」, 『여성문학연구』 33, 한국여성문학회, 2014, 119~145쪽.
- 하신애, 「식민지 말기 박태원 문학에 나타난 시장성: 『여인성장(女人盛裝)』의 소비주체와 신체제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2집, 상허학회, 2011, 313~355쪽.
- 허영란, 「전시체제기(1937~1945) 생활필수품 통제 연구」, 『국사관논총』 88집, 2000, 289~330쪽.
- 홍양희, 「한국: 현모양처론과 식민지 ‘국민’ 만들기」, 『역사비평』 52, 역사문제연구소, 2000, 364~374쪽.

Abstract

Non-nationalization of Consumptive Mass in the Project of National Capitalism in Colonial Korea during Total War Period(1937~1945)

Kwon, Chang-Gyu

The daily consumption was emphasized in everyday life nationalistic campaigns(國民精神總動員運動(1938), 國民總力運動(1941)). The fact that daily consumption was emphasized in nationalization campaigns has showed the nationalization project of consumptive mass in total war period. This paper focused on non-nationalization(非國民化) of consumptive mass even though many nationalization projects were campaigned during total war period. The possibility of non-nationalization was due to the daily consumption which had consisted of civilization process and the formation of mass was the base of the nationaliz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representation of consumptive mass in the Park Taewon's novels, Kim Kirim's essays and etc. In particular this paper discussed about the reason why women were the target of the nationalization campaigns and the gendered phase of national capitalism.

Key words : Total War, National Capitalism, Consumptive Mass, Nationalization, Patriarchy, Good Wife and Wise Mother

■ 본 논문은 2015년 11월 12일에 접수되어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